

해명자료

문의 : 방송정책국 방송채널정책과 김영관 과장(☎750-2471)
방송채널정책과 윤석배 사무관(☎750-2481) syoon@kcc.go.kr

“종편·보도PP 승인 심사는 공정하고 적정하게 이루어져”

- 경향신문 보도 관련 방통위 입장 -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경향신문의 “종편 심사 ‘조중동 편들기’ 사실로” 제하 등의 기사에서 ‘방통위의 배점과 심사위원의 주관적 판단이 당락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나 심사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역대 방송승인 사례에 비춰볼 때, 비계량 항목에 대한 배점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등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를 것을 밝힙니다.

1. 이번 승인 심사의 계량평가의 배점 비중은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의 경우 24.5%,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심사의 경우 20.0%로서, 이전의 방송사업 허가·승인의 계량평가 비중보다 높은 수준으로 설정하였습니다.

【 계량평가 배점비중 비교】

구 분 (연도)	위성방송 (‘00)	위성DMB (‘05)	지상파DMB (‘05)	보도FM (‘07)	경인만방 (‘07)	IPTV 제공 (‘08)	종편PP (‘10)	보도PP (‘10)
비 중	28%	19%	18.5%	17%	10%	10%	24.5%	20.0%

계량평가항목인 재정능력에 대한 평가 비중 역시 종합편성PP는 15%, 보도전문PP는 10.5%로 설정하여 이전의 방송사업 허가·승인과 비교할 때, 그 비중이 가장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 재정능력 배점비중 비교】

심사사항 (단위 : %)	홈쇼핑 PP	홈쇼핑 DP	위성 방송	지상파 DMB	위성 DMB	경인 민방	IPTV 종편	종편 PP	보도 PP
재정 및 기술적 능력	10	25	30	30	30	20	20	20	20
재정적 능력(계량)	6	15	15	15	15	10	10	15	10.5
기술적 능력(비계량)	4	10	15	15	15	10	10	5	4.5

참고로, 계량평가항목의 비중과 내용 등은 공청회, 전문가토론회 등 공개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절차를 통해 마련된 승인기본계획(2010.9.17.) 및 승인세부심사기준(2010.11.10.)에 포함되어 공지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 아울러, 심사의 최종결과는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심사위원들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판단한 결과입니다.

이번 종편·보도PP 선정 심사는 과거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의혹이 있는 것처럼 보도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끝.